

국토부,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쟁의행위 개시 관련 비상 대응체계 강화

- 항공운송마비 위기경보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
-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비상대책본부(본부장 : 항공정책실장) 운영 개시
- 쟁의행위 관련 항공기 지연 및 안전운항 등 항공운송현황 집중 모니터링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6월 7일 열린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준법투쟁 유형의 쟁의행위를 개시함에 따라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.
- 국토부는 「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에 따라 기존의 위기경보 관심단계에서 6월 7일부터 주의단계*로 격상하고, 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.
 - * 위기경보 단계 : 관심 ⇒ 주의(쟁의행위 개시결정) ⇒ 경계(파업) ⇒ 심각(20일 이상 파업)
- 또한, 관계기관인 양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,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및 항공기 지연상황,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(항공운송마비 비상대책본부장)은 “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영혜 (044-201-4219)
		담당자	사무관	송태호 (044-201-4227)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	책임자	과 장	민풍식 (044-201-4259)
		담당자	사무관	조계웅 (044-201-4786)